

## 법무매거진

### 법조언론인클럽 정기총회... 새 회장에 이태규 논설위원



법조인 동정

〈지난 2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법조언론인클럽 정기총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은 이태규 신임 회장(왼쪽 4번째)과 전직 회장들. 뒷줄은 이날 새로 선임된 총무, 감사, 부회장들〉



“중앙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태규(56)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한국일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총무에는 김승현 중앙일보 사회2팀장과 김정인 SBS 사회부 시민사회팀장, 홍희경 서울신문 사회부 차장이 선임됐다. 강희철 한겨레 디지털·영상국장은 감사를 맡는다.

부회장에는 박정철 매일경제 논설위원, 노효동 연합뉴스TV 부국장, 김철우 KBS 기자, 최재혁 조선일보 사회부 부장대우, 정원수 등

아일보 논설위원, 김태훈 세계일보 오피니언 담당부장이 뽑혔다.

2007년 5월 출범한 법조언론인클럽은 한국의 대표적 전문기자클럽이다. 신문·방송·통신 등 중앙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을 목표로 결성했다. 그동안 법조 개혁, 법조 갈등, 사이버모욕죄, 아동 성폭력, 포도라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또 매년 법조계 발전에 이바지한 법조인과 법조 관련 이슈를 선도한 기자들을 선정해 각각 ‘올해의 법조인상’,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